

2023 Octo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목차

| | |
|-------------|---|
| I. 금리 | 3 |
| I. 달러/원 환율 | 5 |
| III. 엔/원 환율 | 7 |
| IV. 유로/원 환율 | 7 |

금리

9월 동향

미 8월 CPI의 대체적 시장 예상 부합에도 감산 이슈에 의한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며 추세적 상승 보인 후, FOMC 회의에서 긴축 장기화 우려가 불거지며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흐름 보이며 마감

미 8월 고용보고서가 소폭 냉각 기류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나타냈으나, 유가 하락세 전환과 함께 금리 상단 제한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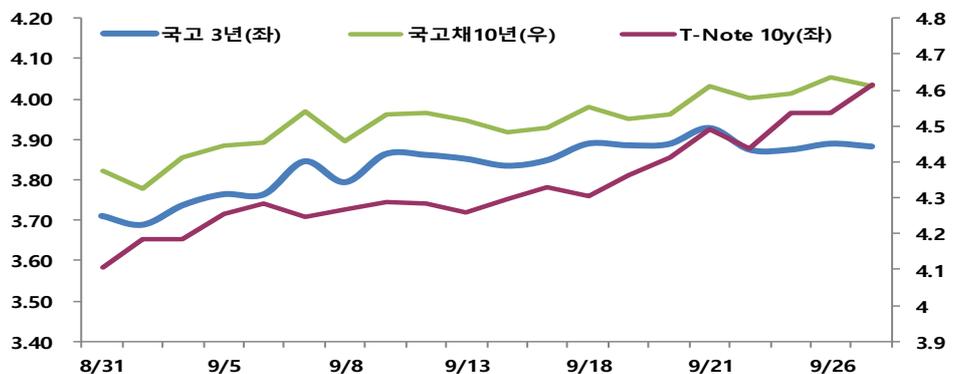
미 8월 CPI 가 다소 상승세 전환했음에도 대체적 시장 예상 부합 인식에 국내외 금리는 하락. 하지만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에 의한 긴축 우려로 재차 상승 흐름

9월 FOMC 결과의 긴축 유지 장기화 가능성 등에 따른 매파 성향 강화 인식 속에 국내외 금리 상승 압력 확대

- 월초, 미 8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에도 국내 수급 영향 반영하며 상승 출발. 이어 국제유가의 9거래일 연속 상승이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 시현
 - 월 초, 미 8월 비농업 고용지표 시장 예상 상회에도 12개월 평균 하회한 가운데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둔화로 연준 긴축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 하지만 국내 수급상 매도 영향 강화 등으로 상승 출발
 - 이어 유가의 9거래일 연속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 추세 이어지다, 유가 상승세 제한되는 국면에서 국고채 금리도 하락 전환되는 양상 시현
- 중반, BOI 통화정책 변화 우려 등을 반영하며 급등세 시현. 이후, 8월 미 CPI의 대체적 시장 예상 부합 속 하락 전환하다 국제유가 90 달러대 진입 등에 따른 긴축 우려로 재차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일본 BOI의 통화정책 변경 우려와 대내적 국채선물 매도 강화 등의 수급 요인 반영 등으로 급등세 시현. 이어 미 8월 CPI의 대체적 시장 예상 부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인식 속 하락 전환
 - 이후, 국제유가의 90달러대 진입 등에 따른 긴축 우려감 지속으로 상승세 양상 보였으나, 미국 주택 지표 부진등에 따른 경기 우려 부각에 따라 상단 제한되는 국면 시현
- 후반, 9월 FOMC의 매파적 성향으로 상승 탄력 이어졌으나, BOI 금정위의 기존 정책 유지 결정이 상단을 제한. 이어 미 연방정부 섰다운 가능성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영향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추세적 상승세로 마감
 - 후반, 9월 FOMC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인식으로 큰 폭 상승세 이어졌으나, BOI 금정위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국고채 시장 강세 재료로 인식되며 상단 제한된 국면
 - 이어 무디스사의 미 연방정부 섰다운 가능성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시사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상승 추세 유지 후 추석 연휴전 국내 기관들의 포지션 조정 등의 수급 영향 반영하며 소폭 하락 전환 마감

9월 평균
국고채(3년): 3.84%
T-Note(10년): 4.6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0 월 전망

대내적 경기상황 고려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 길고 오랜 기간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함에 따른 영향 반영 속에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 반영하며 소폭 상승 압력 높게 나타날 전망

| 평균 | 1Q23 | 2Q23 | 3Q23 | 4Q23 |
|------------|------|------|------|---------------------|
| 국고채(3y, %) | 3.46 | 3.38 | 3.73 | 3.60 ^(F) |

연준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외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국고채 금리 추가 상승 압력 배제할 수 없을 듯

- 최근 미 고용관련 지표가 재차 개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를 반영한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변동성 확대 국면이 다소 지속될 전망 등으로 국고채 금리 또한 변동성 확대됨에 따라 상승 압력이 다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간 유가 상승에 따른 연준 긴축 움직임에서 9월 FOMC 이후 매파 성향에 따른 긴축장기화 가능성에 의해 금리 상승 요인이 전이된 국면
 - 이러한 상기 요인에 따라 국내외 금리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9월 미 고용과 CPI 결과에 따른 11월 FOMC에서의 금리 방향 예상에 의해서 추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대내적 경기 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유로존과 중국 등에서의 경기 불확실성 또한 지속되는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

- 최근 국내 반도체 업황 개선 속에 주요 지표들의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 여기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제외한 유로존과 중국 등에서의 경기 불확실성 움직임은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반도체 업황 회복과 산업생산 지표 개선 등 일부 경기 개선 조짐에도 연말까지 대외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은 한은 금리 동결 기조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미국 경기의 연착륙과 대비된 유로존과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점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하지만 최근 연준 매파성향에 의한 금리 상승 추세를 제어하기에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10월 국고채(3Y) 금리는 3.90%~4.10% 예상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가 3.7% 상승하며 재차 최대폭을 키운 가운데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국면. 반면, 상기의 경기적 상황만을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동결 기조가 우위를 보일 전망
 - 국내 9월 소비자 물가가 재차 3.7%로 상승하며 최대폭을 키운 가운데 대외적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최종 수준 3.75%를 고려할 수도 있는 국면
 - 하지만 위 요인만을 고려한 통화정책에 대해 현 국내 경기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국면. 여기에 물가 전망이 10월 이후 3% 내외인 점도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전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 상승요인 | 하락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매파 성향과 긴축 장기화 우려 · 유가 상승세 반영 등에 의한 국내 물가 재반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미 고용보고서 및 CPI의 다소 둔화 양상 가능성 ·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 제한 속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경기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가능성 우위 |

달러/원 환율

9 월 동향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와 연준의 고금리 정책 장기화 전망 속 미 국채금리 상승세 및 글로벌 강달러 영향 등으로 환율 상승 압력 지속되는 가운데 장중 1,350원대 진입하며 연고점 경신

美 경제지표 호조와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장기화 가능성 확대된 측면이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 미치며 환율은 1,330원대 진입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물가지표에도 연준 금리동결 기대감 유지되고, 일본과 중국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속 엔화·위안화 반등 영향 더해지며 환율은 1,320원대에서 등락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확대에 따른 미 국채금리 급등세가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과 수급상 수출업체 네고물량 우위 영향 등에도 원화 약세 지속됨에 따라 연고점 재차 경신

■ 월초,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와 유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우려 자극하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 강화된 영향으로 환율은 1,330원대로 상승

- 월초, 미국 실업을 증가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및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달러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되며 환율 1,330원대 재진입
- 견조한 미국 경제상황과 유가 급등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등에 연준 정책 불확실성 높아진 측면이 달러 강세 견인했으나 조선업체 수주 소식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에 1,330원대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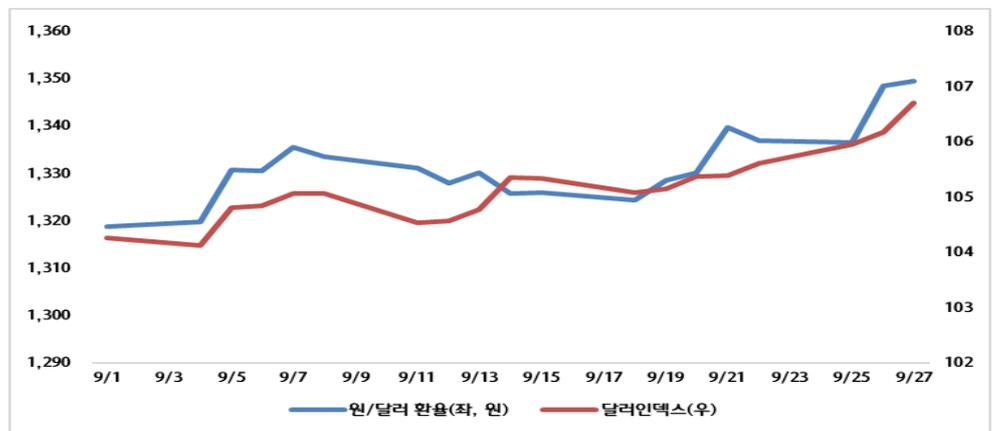
■ 월 중반, 미국 8월 CPI 반등에도 시장은 9월 FOMC에서의 연준 금리동결 전망에 무게 두는 가운데, 엔화 및 위안화 변동에 영향 받으며 1,320원대로 하락 후 상승 압력 제한된 모습

- 중반, BOI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엔화 반등으로 달러 강세 제한되며 환율은 1,320원대로 하락 후, 미국 CPI 상승폭 확대에도 연준 금리동결 기대감 반영되며 환율은 1,320원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
- ECB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과 견조한 미국 물가지표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달러 강세 이어졌으나 중국 8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위안화 강세 영향 등을 반영하며 1,320원대 등락 흐름

■ 후반,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 국채금리 급등하고 글로벌 달러 강세 모멘텀 지속됨에 따라 환율은 장중 1,350원대 진입하는 등 연고점 재차 경신하며 1,340원대 후반에서 마감

- 후반, 9월 FOMC에서의 금리동결 결정은 예상에 부합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시사 등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 확인되며 달러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압력 가중되며 1,340원대 진입
- 이어 수급상 분기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당국 개입 경계심리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미 국채금리 상승세와 글로벌 강달러 기조 이어지면서 1,349.3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9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31.7
9월말 달러/원 환율 : 1,349.3

10 월 전망

미국 경제의 상대적 모멘텀 우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압력과 연준 고강도 긴축 의지 등을 고려할 때, 11월 FOMC 이전까지 1,370원을 상단으로한 상방압력 높을 것으로 전망

| 평균 | 1Q23 | 2Q23 | 3Q23 | 4Q23 |
|---------------|-------|-------|-------|----------------------|
| 달러/원 환율(원) | 1,280 | 1,310 | 1,312 | 1,290 ^(F) |

월초 1,350원대의 높은 환율 수준이 예상되나, 9월 고용보고서와 CPI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는 측면 등이 반영되며 점차적으로 1,350원 하향 이탈할 것으로 전망

미국 경제의 하반기 연착륙 대비 주요국 경제의 불확실성 및 통화완화 정책 지속 요인에 따른 통화 약세 흐름이 달러 강세 견인에 또 다른 영향 요인으로 판단

10월 달러/원 환율
1,335원 ~1,370원 예상

- 10월 초반까지 매파적 FOMC 영향을 반영하며 1,350원 전후 흐름을 보일 전망. 여기에, 11월 추가 긴축 우려가 국제유가 흐름에 연동하며 상존할 전망이다. 9월 미국 고용과 CPI가 소폭 둔화될 경우 추가 긴축 우려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되며 환율은 1,350원을 하향할 것으로 예상

 - 9월 FOMC의 매파적 영향이 월 초반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하며 1,350원대 전후 등락이 예상
 - 하지만 9월 고용지표와 CPI 지표가 재차 둔화로 전환할 가능성 상존 속에 이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 완화 측면은 환율 1,350원 전후에서의 하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대비 여타 주요국 경제권은 긴축을 유지할 체력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는 측면이 통화적 강달러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

 - 유로존 경기 부진 장기화 속 9월 금리인상을 끝으로 인상 사이클 중단 예상되는 가운데, BOJ 또한 통화 완화정책 유지 스탠스에 따른 측면이 달러 강세를 통한 통화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위안화 약세 흐름 지속 가능성 등 전반적인 주요 경제권 통화 약세 흐름 전망이 소폭 달러 강세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최근 국내 반도체 업황이 다소 회복하며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의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회복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예상 속에 한은 금리 동결 기조 지속 등이 원화 약세를 되돌리는데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높아진 물가 수준 등 다양한 경제 요인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회복 국면이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여전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대외 통화정책을 고려한 한은의 최종 금리 3.75% 유지에도 경기 국내 경제 회복 정도가 미약함에 따른 동결 기조 가능성 또한 원화 약세를 되돌림하기에는 다소 힘에 부칠 전망. 그럼에도, 외환당국 관점에서 1,400원대 진입의 원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 상승요인 | 하락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의 긴축 장기화 스탠스 강화 유로, 엔화 관련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미국 고용과 CPI 등 주요 지표의 소폭 냉각 가능성 외환당국 1,400원대 근접에 따른 미세조정 강화 |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BOI 통화 약세 방어에 대한 의지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고수를 유지하는 측면과 대외적 미 연준의 오랜 기간 강한 긴축 정책 유지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속 달러 강세 흐름이 엔화의 150엔 전후 흐름 견인에 영향 미칠 전망

9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7.9
9월 엔/원 평균환율 : 901.6

10월 엔/원 예상범위 : 900-915원

- (엔화 동향) 일본 소비지표 부진한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의 차별화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 이어졌으나 우에다 BOJ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 언급으로 강세 전환. 중반, 반동한 미 8월 CPI와 9월 FOMC에서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시사에 달러 대비 약세 지속. 후반,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BOI의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결정 및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 등으로 연준과의 통화정책 차이 부각됨에 따라 엔화 가치는 연중 최저치 기록하며 약세 마감
 - (엔/원 전망) 9월 FOMC가 매파적 영향을 강화한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개선 흐름 지속 속에 긴축 장기화 우려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급등 양상이 달러 강세 견인할 전망. 여기에 BOI의 YCC 유연화 정책 이후 금융시장 트리플 약세 등 금융실물 부문의 전반적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강화에도 여전히 미국과 차별화하는 양상 등에 따라 점증적인 엔화 약세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난 9월 FOMC 결과의 매파적 성향 강화 인식 속 미 경제지표 개선 흐름에 따른 긴축 장기화 우려가 미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하면서 달러 강세 다소 강화될 전망이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BOI YCC 유연화 정책 이후 금융시장 트리플 약세 흐름 속에 실물경제의 회복 둔화 양상 지속 등으로 다소 엔화 약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통화완화를 지속하게 하는 BOI의 강한 의지 방어 등에 따라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보다 상대적으로 심화되며 엔/원 환율은 900-915원 수준 등락 예상

유로/원 전망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 등에 따른 달러 강세 강화 속에 ECB의 상대적 통화 정책 차별화 가능성 등이 유로화의 추가적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

9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671
9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22.8

10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90~1,420원

- (유로화 동향) 예상보다 부진한 유로존 경기지표와 독일 인플레이션 둔화세 등에 ECB 금리 동결 전망 강화됨에 따라 유로화 약세 지속. 중반,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25bp 금리 인상 결정에도 비둘기적 스탠스에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약세 흐름 심화. 후반, 주요국과 차별화된 연준의 매파 행보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리스크, 미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에 따른 리스크오프 등에 약세 마감
 - 유로존 근원 물가가 소폭 하향 조정된 반면 성장 전망은 크게 하향 조정되며 향후 물가보다 성장으로 ECB의 통화정책 방향 조정이 예상. 여기에 9월 FOMC 이후 추가 긴축 우려 등에 따른 달러 강세 기조 반영 전망 등으로 유로화는 약세 흐름 지속이 예상
- 유로존 근원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된 국면이나 성장 전망은 큰 폭 하향되며 향후 ECB 통화정책 방향이 물가보다 성장으로 조정 예상, 이에 추가 금리인상도 9월 통화정책을 끝으로 동결 전환할 것으로 보임
- 유로/원은 연준 긴축 유지 강화 등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속에 유로존 경제 불확실성 중대 등으로 인한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에 따라 상대적 원화 강세 반영 이어지며 1,400원 전후 흐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10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 미국 2024 회계연도 시작 한 9월 수출/입(YoY -8.4%, -22.8%) | 2한국 휴장(임시공휴일) [휴장] 한국(임시공휴일), 중국(국경절), 홍콩(중국기념일 대체휴일) BO 9월 요약본 공개 한 8월 광공업생산 (MoM -2.0%, YoY -8.0%)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미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ISM 제조업(47.6), 구매물가(48.4) ISM 고용(48.5), 신규주문(46.8) 유 8월 실업률(6.4%) 일 3Q 단칸 대형/소형 제조업, 비제조업 | 3한국 휴장(개천절), RBA 통화정책회의 [휴장] 한국(개천절), 중국(국경절) [RBA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로 3연속 동결했으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둠 (2) RBA는 타이탄한 고용이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며 임금 상승률은 목표치 부합한다고 언급 미 8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8.827M) | 4OPEC+ JMMC 회의 [휴장] 중국(국경절) OPEC+ JMMC(공동감시위원회) 회의 뉴 10월 기준금리 결정 미 8월 제조업수주(MoM -2.1%) 9월 ADP 취업자 변동(177k)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지수, 고용, 신규주문 유 8월 PPI(MoM -0.5%, YoY -7.6%) 소매판매(MoM -0.2%, YoY -1.0%) 9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일 9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 5 [휴장] 중국(국경절) 한 9월 CPI(MoM +1.0%, YoY +3.4%) 미 9월 Challenger Job Cuts(YoY +266.9%) 호 8월 무역수지, 수입/수출 | 6미국 고용보고서, 삼성전자 잠정실적 [휴장] 중국(국경절)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예정 미 8월 소비자신용지수 9월 비농업부문의용자수 변동(187k) 실업률(3.8%), 경제활동 참가율(62.8%)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일 8월 가계 소비지출(YoY -5.0%) 실질 임금총액 선행지수, 동행지수 | 7 |
| 8 | 9 한국휴장(한글날) [휴장] 한국(한글날), 일본(체육의 날) 미국 콜럼버스 데이 IMF, WB 연례 추계 회의(-15) : IMF는 4, 10월에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 발표 중 9월 통화공급 M2(YoY +10.6%) 유 10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21.5) 일 9월 공작기계 수출[P] 독 8월 산업생산 | 10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 8월 도매무역(MoM +0.8%), 도매재고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1.3) 일 9월 경기관찰조사 현황, 전망 | 11지준일 FOMC 9월 회의록 공개 한 10월 1~10월 수출/입 데이터 (YoY -7.9%/-11.3%) 미 9월 PPI(MoM +0.7%, YoY +1.6%) PPI 근원(MoM +0.2%, YoY +2.2%) 유 8월 ECB 1년/3년 CPI 기대 독 9월 CPI | 12 옵션만기일, 미 CPI 옵션만기일 미 9월 CPI(MoM +0.6%, YoY +3.7%) CPI 근원(MoM +0.3%, YoY +4.3%)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5%) 일 8월 핵심기계수주(MoM -1.1%, YoY -) | 13 한 9월 실업률(2.4%) 미 9월 수입물가(MoM +0.5%, YoY -3.0%) 수출물가(MoM +1.3%, YoY -5.5%)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기대[P] 미시간대학교 1, 5~10년 인플레이션[P] 중 9월 CPI(YoY +0.1%), PPI(YoY -3.0%) 수출(YoY -8.8%), 수입(YoY -7.3%) 유 8월 산업생산(MoM -1.1%, YoY -2.2%) 일 9월 통화량 M2(YoY +2.5%) | 14 |
| 15 | 16 미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9) 유 8월 무역수지 일 8월 광공업생산[F] 9월 설비가동률 | 17 한 8월 통화공급 M2 9월 수출물가(MoM +4.2%, YoY -7.9%) 수입물가(MoM +4.4%, YoY -9.0%) 미 8월 기업채고(MoM +0.0%) 9월 소매판매, 근원 소매판매(MoM +0.6%)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79.7%) 10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3) NAHB 주택시장지수(45) 일 8월 3사 산업 지수 | 18 Beige Book 연준베이지북공개 미 9월 주택착공건수(MoM -11.3%) 건축허가(MoM +6.9%) 중 3Q GDP(QoQ +0.8%, YoY +6.3%) 9월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부동산투자 실업률(5.2%) 유 8월 건설 생산(MoM +0.8%, YoY +1.0%) 9월 CPI[F](YoY +5.3%), CPI 근원[F] | 19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 경기 불확실성 중대하게부채유리 강조 (2) 한은은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 운용 하겠다고 언급. 통화 기조 이어질 지 주목 9월 기준주택매매(MoM -0.7%) 선행지수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일 9월 수출/입 | 20 일 9월 CPI, CPI 근원 뉴 9월 무역수지, 수입/수출 | 21 |
| 22 | 23 [휴장] 홍콩(중양절) 미 9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유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P] | 24 한 9월 PPI(YoY +1.0%), PPI 근원 미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리치먼드 연방 제조업지수 유 10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10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 25 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9월 신규주택매매 호 3분기 소비자물가 | 26ECB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로 25bp 인상하며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 (2) ECB는 이번 회의 후 인상 중립 가능성 시사 EU 정상회의(-27) 한 3Q GDP(QoQ +0.6%, YoY +0.9%) 19월 기업경기실사비제조업, 제조업 미 3Q GDP, 개인소비 10월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일 9월 PPI 서비스 | 27 미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PCE, PCE 근원 디플레이터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기대[F] 캔자스시 연준 서비스업 활동 중 9월 산업생산, 공업기업이익 일 10월 도쿄 CPI, CPI 근원 | 28 |
| 29 중 10월 중앙,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3Q GDP 10월 CPI, CPI 근원[P] 일 9월 실업률,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주택착공건수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 | 30BOI 통화정책회의(~31) [BOI 통화정책회의(~31)] (1)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0.1%로 동결. YCC 정책 유지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 (2) BOI는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통화완화 정책 유지 미 10월 시카고PMI지수 유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산업, 경기, 서비스 기대지수 | 31 미국 FOMC(~11/1) [미국 FOMC(~11/1)]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로 동결. 점도표 상향(24년 5.1%, 25년 3.9%) (2) 경기 연락처 전망. 올해 점도표 중간값은 5.6%로 유지. data-dependent 기조 이어감 한 9월 광공업생산 미 3Q 고용비용지수(QoQ +1.0%) 10월 MNI 시카고 PMI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 10월 주요 ISSUE RBA 통화정책회의(10/3) IMF, WB 연례 추계 회의(10/9~15) 옵션만기일(10/12) 연준 베이지북 공개(10/18) 한국 금융통화위원회(10/19) ECB 통화정책회의(10/26) BOI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0/30~31) 미국 FOMC(10/31~11/1) | | | |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